

언론동향(12. 6.)

《언론보도 목차》

1. (국민일보) 6.25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에 평화기념관 건립된다 2
2. (중앙일보) “김정은 사망” 이런 北 가짜뉴스 잡는다..통일부 예산2억 첫 편성 3
3. (파이낸셜뉴스) 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합의각서 체결 (별첨)
4. (경기일보) 파주 국립DMZ기억의 전당 기본계획수립 국비 2억 반영 6

6·25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에 평화기념관 건립된다

2025년까지 국비 등 283억 투입

입력 : 2021-12-06 04:07



6·25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강원도와 철원군은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조감도) 건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평화기념관은 철원 백마고지 전적비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2025년까지 국비 191억원 등 283억원이 투입된다. 남북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화, 희망 등 비전을 형상화한 라키비움 형태의 기념관으로 조성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공간을 뜻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사항으로 추진된 남북 공동 유해발굴 과정과 성과, 주제별 스토리텔링을 구현해 평화의 가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화살머리고지는 1953년 국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당시 참전했던 국군, 중공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의 유해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북이 최초로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이듬해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소강 여파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유해발굴은 지난 6월 마무리됐다. 유해발굴 작업 결과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3092점의 유해가 발굴됐다. 인식표와 계급장, 방탄복, 방독면, 개인화기 등 당시 전투에 참여한 군인의 유품 10만 1816점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이 남북 간 상호 신뢰와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김정은 사망" 이런 北가짜뉴스 잡는다…통일부 예산 2억 첫 편성

중앙일보 | 입력 2021.12.03 16:03 업데이트 2021.12.03 16:10

박현주 기자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확정됐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최초 편성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 1조 5023억원으로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늘어났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억 9000만원 늘어났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이 통일부 예산으로는 최초로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사망설이 돌기 시작해 올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까지 등장하는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 민간 기업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북한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방대한 뉴스 중 가짜나 왜곡을 가려내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가능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정보의 특성상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시일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모니터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추진에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 교육 사업에 2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편성됐다.



2일 조선중앙TV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전날 김정민 국무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설 등 추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설립(32억 8000만원),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구축(12억원)이 있다. 통일부는 지난 1989년 개관한 북한 자료센터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경기 고양시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내년엔 부지 계약과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북·통일정책 플랫폼은 기존의 통일부 소관 자문위원회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해 통일부 정책 수립 시 민간 협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소해 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끼쳤다.

탈북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올해 489억원에서 내년 42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탈북민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은 올해 490억원에서 내년 532억원으로 늘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 계획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2690억원, 기금운영비 23억 5000만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단 예산으로 잡아둔 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올해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집행률이 2%대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예비적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지만,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를 높이려면) 내년에도 정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다. 통일부는 "DMZ 내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고 'DMZ 통일 걷기 노선'을 횡단하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30km마다 숙소, 휴게소, 화장실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DMZ 출입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속보] 파주 국립DMZ기억의 전당 기본계획수립 국비 2억 반영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 입력 2021. 12. 05 오후 3:07 | 댓글 0

내년 정부 예산에 문체부의 국립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이 확정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해당 시설 건립에 파주시·경기도·정치권 등이 유치를 선언한 뒤 문체부 연구용역 결과 임진각 일대가 최적지로 나온 바(본보 6월16일자 1면)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019년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혁신전략 추진과제로 선정된 국립 DMZ 기억의 전당(박물관) 설계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발주,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등을 마무리했다. 이 결과 파주 임진각이 입지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92점(BC 1.12,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으로 1위를 차지했고 67년만에 파주시로 주소를 되찾은 판문점이 84점, 그 다음으로 강원지역 등의 순이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수립비가 확보됨에 따라 국립 DMZ 기억의 전당을 국비 48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연면적 1만5천200㎡, 지하1층~지상 3층으로 DMZ유물수집 연구시설, 아카이빙센터,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국립 DMZ 기억의 전당 파주 유치에 평화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핵심 공약이다. 이미 실시했던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입지점수가 임진각 과 판문점이 나란히 1~2위를 차지, 유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는 DMZ 평화의 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조성, 임진각평화근돌라 개통 등 DMZ에 관한 상징성과 접근성, 인프라 등을 모두 갖췄다"면서 "국립 DMZ 기억의 전당 유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박정 국회의원 등과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와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드시 유치, 평화관광의 새로운 국내외 콘텐츠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